

“정팔이는 이기적인 인물...욕 많이 먹어”

이동휘 ‘카지노’ 양정팔 연기
범죄 기사 읽고 배역 심리 이해
“코믹연기 좋지만 확장 필요”



배우 이동휘 /윌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제공

“정팔이 형 왜 그랬어”, “정팔씨, 사람이 그러는 것 아니오”, “정팔이나빠요. 이견 아니잖아요.”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에서 최무식(최민식 분)의 오른팔인 양정팔을 연기한 배우 이동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4일 현재 실시간으로 캐릭터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지난 22일 충격적인 결말로 시즌2를 마친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에는 양정팔의 배신이 담겼다

양정팔은 최무식의 최측근으로 그를 보필하는 부하지만 영 믿음이 안 가는 인물이다.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뻔뻔함은 기본이고, 속도 좁은 데다 최무식 몰래 돈을 빼돌리려다 사건·사고에 얽히는 것도 여러 번이다.

양정팔이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찾는 이는 차무식. 차무식은 미답지 않은 인간을 때린 위기에서 구해준다. 정작 양정팔은 차무식이 벼랑 끝에 몰리자 아예 등을 떠밀어버린다.

이동휘는 양정팔의 배신을 두고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저도 시청자로서 격하게 공감한다”고 불만 섞인 진심을 털어냈다.

그는 “마지막까지 누가 (차무식을) 죽일 것인가를 두고 현장에서 논의를 많이 했다”며 “드라마 초반에 차무식이 최측근에 의해 허무하게 느낄 만큼 환수간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선배님(최민식)이 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기세 하나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던 그 온 좋은 사람(차무식)이 허무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점이 인생의 롤(이지) 같은 느낌

김도 들어서 좋기도 했다”며 “정팔이 입장에서 보면 차무식을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동료였던) 상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살기 위해 (차무식에게) 방아쇠를 당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 같이 극장에서 (‘카지노’)를 본 날 정팔도 맞는 건 아닌가 싶었다. 경호원을 좀 늘려서 잡가지 데려다줬으면 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양정팔에 대한 배신감이 큰 까닭은 차무식이 양정팔에게 보여준 믿음과 의리 때문이다. 차무식은 때론 거짓 눈물로 매달리는 양정팔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이를 만회할 새로운 기회를 준다. 큰 사고를 쳤을 때도 일을 수습해주며 “애 사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련다”라고 말한다.

이동휘는 이런 차무식과 양정팔의 관계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고, 연기로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앞서 최민식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정팔이는 말 안 듣는 자식 같은 놈”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돌봐줄 이유가 없는데,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다. 이유가 없어도 그냥 끌리는 거다.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듯이 맨날 말썽부려도 내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휘는 사기를 치고 도망간 범죄자 등에 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양정팔의 심리를 이해하려 애썼다고도 했다.

그는 “정팔이는 자기밖에 모른다”며 “사람이 돈을 벌려면 갚아야 하는데 채무 자체에 대해 인지도 하지 않는다. 저도 애정을 못 갖는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동휘는 양정팔의 서사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듯했지만, 극 중 양정팔은 이동휘 특유의 능청스럽고 잔 내 나는 매력에 덧붙여지면서 코믹하고 귀엽게 그려지기도 했다. 이동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2015), 영화 ‘극한직업’ (2019) 등에서도 감초 같은 코믹 연기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동휘는 “코믹 연기를 선호하는 건 맞다”며 “극장에서 관객들이 제가 웃긴 연기를 한 장면을 보며 막 웃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희열을 느낀다. 고단한 날들을 보내다가 나의 어떤 한 재주로 그걸 잠시 잊는 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배우로서 한 지점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다”며 “배우는 선택받은 직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연기를 다 할 수는 없다”고 털어냈다.

그러면서 “‘카지노’에서도 분명 윤희열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전보다 캐릭터가 훨씬 약탈해졌다. 내년에 나오는 ‘범죄도시4’에서도 그렇다”며 “점점 더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받아 든 것 같다. 차근차근 영역을 넓혀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솔한 내면 담아...공허·쓸쓸함 직면”

BTS 지민 솔로 음반 발표

“진정한 나와 직면했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인 만큼 어디서든 꺼내지 않은 제 진솔한 감정, 지민의 모습을 녹여냈습니다.”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은 지난 24일 첫 솔로 음반 ‘페이스’ (FACE) 발표를 기념해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공허함, 쓸쓸함, 방향을 직면했다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의지와 힘이 생겼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페이스’는 그가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는 공식 솔로 음반이다.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 (Like Crazy)와 선공개곡 ‘셋 미 프리 Pt.2’ (Set Me Free Pt.2)를 비롯해 총 6곡이 담겼다.

지민은 이번 음반에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느낀 진솔한 감정을 담아냈다.

특히 네 번째 트랙 ‘얼론’ (Alone)에는 이런 분위기가 물씬 묻어 나온다.

그는 “‘페이스’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면·대면 혹은 마주한다는 뜻도 있다”며 “이 앨범 또한 저 자신을 온전하게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를 마주하게 됐다

는 의미로 ‘페이스’라고 (이름을) 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음반 재킷은 물결이 퍼져 나가는 듯한 동심원으로 디자인됐다.

지민은 이를 두고 “깊숙한 내면은 크고 작은 파문이 일듯 변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 내면을 담은 앨범을 저만의 목소리로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는 쉽고 경쾌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신스팝 장르다. 동명의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음반의 정식 발매에 앞서 공개된 ‘셋 미 프리 Pt.2’의 뮤직비디오가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지민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날 공개된 ‘라이크 크레이지’의 뮤직비디오는 변칙적인 화면 전환을 통해 상처투성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려는 지민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는 “많은 분이 제게 기대하는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무와 퍼포먼스도 준비했다”며 “‘셋 미 프리 Pt.2’는 웅장하고 파워풀하고 터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라이크 크레이지’는 유연하고 섬세해서 어찌 보면 많이 보아왔던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BTS 지민

/빅히트뮤직 제공

MBC ‘꼭두의 계절’ 시청률 1.6% 종영

전형적 로맨틱 코미디 흑풍

어디선 본 듯한 익숙한 전개에 따른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꼭두의 계절’이 1%대 시청률로 퇴장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4일 밤 9시 50분 방송된 MBC ‘꼭두의 계절’의 최종회 시청률은 1.6%로 집계됐다.

최종회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저승신 꼭두(김정현)는 5년이 지난 후 한계절(임수향) 앞에

기적같이 다시 나타나고, 둘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사랑을 마침내 이루어 해피 엔딩을 맞는다.

‘꼭두의 계절’은 99년마다 인간에게 천벌을 내리러 이승에 내려오는 사신(死神) 꼭두가 신비한 능력을 갖춘 의사 한계절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1회 시청률 4.8%로 출발했지만, 전개에 예측할 수 있게 흘러가면서 2회 만에 시청률 2%대로 하락했다. 6회에는 1%대로 떨어져 마지막 회까지 1~2%대 시청률을 고 전했다. /연합뉴스

코믹과 멜로를 오가는 두 주인공의 연기 호흡은 나쁘지 않았지만,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까칠하면서도 속은 다정한 꼭두와 밝고 긍정적인 한계절은 로맨틱 코미디 작품 속 전형적인 주인공 캐릭터처럼 그려졌다.

불사의 몸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말에 명령처럼 복종하게 된다는 설정은 tvN 드라마 ‘도깨비’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연합뉴스

KBS 주말극 ‘진짜가~’ 첫회 시청률 17.7%

KBS 2TV 새 주말극 ‘진짜가 나타났다!’가 꼬일 대로 꼬여버린 백진희와 안재현의 첫 만남으로 출발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 방송된 ‘진짜가 나타났다!’ 첫회 시청률은 17.7%로 집계됐다.

첫 회에서는 남자친구의 외도로 분노한 오연두(백진희 분)가 공태경(안재현)의 차를 남자친구 차로 착각해 매직으로 낙서하는 예사롭지 않은 첫 만남이 이뤄졌다.

각기 다른 오연두와 공태경의 가족사도 눈길

을 끌었다. 오연두 가족은 오연두가 남자친구 김준하(정의제)와의 이별로 집에서 사라지자 그녀를 찾으러 다니는 남다른 가족애를 보여줬다.

반면 공태경은 엄마가 재혼한 집에서 누엣가 시처럼 여겨지며 냉대받았다. 새할머니 은금실(강부자)은 비혼주의라고 밝힌 공태경에게 비서실장 장세진(차주영)과의 결혼을 강요했다.

드라마 말미에는 주차장에서 공태경에게 잡힌 오연두가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에서 입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며 앞으로 벌어질 파란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KBS1 | KBS2 | MBC | KBC-SBS | EBS |
|---|---|---|--|--|
|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방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TV쇼 진품명품 |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오아시스 |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너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뽀 좋아좋아 11:15 헬로키즈 체육교실 11:30 와썹 프리매직 |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스 8:50 종ын원 유지원 9:55 SBS 10시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 6:10 세계대마기행 7:00 뽀뽀뽀 뽀로로 7:15 우당탕탕 온화안전단 7:45 뽀뽀뽀 뽀로로 8:00 당동명 유지원 8:20 출동! 슈퍼퀵스 9:05 슈퍼퍼 잉글리시 9:20 빅블루 10:10 한국의 돌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다문화 고부연 1:00 바닷가 사람들 2:45 한국의 돌레길 3:35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퍼피 5:00 EBS 뉴스 6:00 미니특공대 브레인저스 7:00 미라클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
|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대기획 히든어스 한반도 30주년 8:00 김아미 육아 9:00 뉴스9 10:00 가요무대 10:55 더 라이브 11:30 뉴스라인 | 6:5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이별도 리콜이되나? 9:00 안싸우면 다행이야 11:00 개는 훌륭하다 |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매너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안싸우면 다행이야 10: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생활의 달인 10:00 꽃선비 열애사 11:10 동상이몽2 | 7:30 한국의 돌레길 7:50 인간과 바다 8:40 세계대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크프라임 10:45 맞닥터사이클 다이어리 11:35 우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식 |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생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3월 27일 (음력 2월 6일)

| | | |
|--|---|--|
| <p>子</p> <p>48년생 마무리를 잘해라. 60년생 근심거리가 있으니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라. 72년생 의기소침하지 마라. 84년생 세상에 믿을 놈 없다.</p> | <p>辰</p> <p>52년생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좋은 일 생긴다. 64년생 단합이 필요한 시기다. 76년생 분수를 지키면 근심이 사라진다. 88년생 꺼진 불도 다시 바라.</p> | <p>申</p> <p>44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56년생 천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68년생 장애물이 없다. 80년생 새로운 쪽으로 길 방향 바꾸지 마라.</p> |
| <p>丑</p> <p>49년생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피하라. 61년생 대인 관계를 원만하지 못하다. 73년생 고민거리가 해결된다. 85년생 경정하는 습관을 길러라.</p> | <p>巳</p> <p>4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다. 53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65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77년생 인내와 때를 기다려라.</p> | <p>酉</p> <p>45년생 무심히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라. 57년생 전화위복을 느끼게 되는 하루다. 69년생 순리를 따르면 백사 대길하다. 81년생 자신감을 잃지 마라.</p> |
| <p>寅</p> <p>50년생 환수간만 참으면 하루가 편하다. 62년생 여행으로 웃음꽃 핀다. 74년생 구설에 조심하고 여행에 신경 써라. 86년생 기회는 항상 주어진다.</p> | <p>午</p> <p>42년생 선불리 나서면 곤란을 겪는다. 54년생 의욕이 떨어지니 컨디션 조절 잘해라. 66년생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믿자. 78년생 순리대로 하라.</p> | <p>戌</p> <p>46년생 후회할 일 시작도 하지 마라. 58년생 순발력을 발휘해 능력자 소리 듣는다. 70년생 망설이다 기회 놓친다. 82년생 급한 마음 버려라.</p> |
| <p>卯</p> <p>51년생 모임에 나가 기분전환하라. 63년생 자신의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 75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87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라.</p> | <p>未</p> <p>43년생 여행은 피하라. 55년생 고비는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67년생 세상은 공짜가 없다. 79년생 남의 도움보다 스스로 해결하라.</p> | <p>亥</p> <p>47년생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라. 59년생 모두가 싫어하는 이유는 있다. 71년생 모처럼 휴식이다. 83년생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라.</p> |